대접재앙에 의한 지옥의 예고편

(계16:1~11)

오늘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섯 번에 걸친 재앙을 다 읽지 않고 한 재앙씩을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 재앙에 의한 지옥의 예고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첫째 대접 재앙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대접 재앙은 생태계나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나 생태계 그리고 우리 삶의 물리적인 환경에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치시면서, 땅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계나 생태계나 삶의 환경에 재앙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속에 포함 되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과 병행을 하면서 땅, 바다, 강, 물, 하늘의 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의 일곱 대접 재앙이 실제로 자연계나 생태계에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첫째, 둘째 대접 재앙만 일어나도 인류는 한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브라질의 아마존 강 밀림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서 꽃가루가 떨어지면 그 결과로 미국 텍사스 주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생겨난다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기상학자들이 밝혀낸 나비효과라는 것인데, 6대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십사만 사천 명으로 상징되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 같이 변한다면 이건 나비 효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도대체 어떤 재앙인 것이냐?
영적이고 인격적인 재앙입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

다고 이야기합니다.
‘독한 종기’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사로의 온 몸에 헌데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는 그 헌데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욥기 2장 7~8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나오는데 이 악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라고 하는 이 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려움증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도록 가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다른 데가 또 가렵고 끊임없이 가려울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했어요. 얼마나 가렵고 가려웠으면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한 마디로 저주 받은 지금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14장 11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안식의 7일째가 다 제거 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666의 반복이고 쉼이 없는 것이죠. 그 쉼이 없는 삶의 패턴 가운데 악하고 독한 가려움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뜻하는 것이 뭐냐?
어느 한순간의 지금도 마음에 독하고 악한 가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시원할 때가 없는 겁니다. 항상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코트를 두껍게 입었어요. 그런데 저기 등 속 깊은 데서부터 가려움증이 옵니다. 가려워서 죽겠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한테나 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봇대에다 대고 막 비비적거려보지만 옷이 두꺼워서 그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답답하고 한 마디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이런 거예요. 긁어도, 긁어도 시원치 않고 계속 되는 가려움이라는 게 다시 말해 지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인격과 마음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독하고 악한 가려움증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직 불평이고 오직 불만이고 오직 원망입니다. 저주가 내린 것이죠.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밤낮 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밤낮 쉼이 없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밤낮 쉼이 없이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 쉼이 없이 마음에 불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시원

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독합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은 땅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땅의 차원이고 물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육체가 땅 위를 걷고 있으면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삶은 마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사랑해서 기뻐하려 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에, 어쨌든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이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린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바다 속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려는 시선이 와 닿는 바다 속의 삶이었습니다. 타락 가운데 있었고, 부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 바다 속의 물을 통과해서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에 와 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바다 속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나온 썩은 피가 가득 고여 있는 웅덩이 속에 내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체가 옆에 있는 것만 봐도 기절을 할 텐데, 시체가 썩은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만스럽습니다. 어느 한 순간 쉴 수 없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마음에 내린 종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시원한 꼴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동물들이 코끝 같은 데가 가렵고 등허리가 가렵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려움을 없애려고 바닥에 누워서 요동을 칩니다.

그런 것처럼 바다 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이제 바다 속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이 와 닿지 않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저주의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심지어는 곤충의 시체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이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 저주 안에 편하게 거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의 상황으로 던져지실 때에 땀에서 피가 나실 정도로 무서워하시고 싫어하실 정도였던 그런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시선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이제 이 시선까지 완전히 끊어져버렸고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피가 흘러요.

죽음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현상의 궁극적인 본질과 속성은 기쁨입니다. 만족이고 평강입니다. 마음이 가렵고 불만스러워서 쉼 없이 삶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내가 삶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무리 천년만년 발버둥 쳐도, 이제는 머리 털끝만큼도 참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죽은 시체의 피가 가득 고여진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옵니다. 독하고 악합니다. 마음의 가려움증이 있어서 시원하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치는 삶의 환경이 죽은 시체의 피가 썩어서 고여 있는 웅덩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저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죠.
첫째 대접이 저주 받은 지금이라면, 둘째 대접 재앙은 저주 받은 삶 그 자체입니다.
저주 받은 지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만 삶 전체가 이미 생명, 기쁨, 만족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4~7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까?
셋째 재앙의 내용은 강과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과 물을 마시면서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과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피를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피를 마시는 상황이 일곱 대접 재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의 결과가 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죄 값으로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길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거듭하며 6절에는 '합당하니이다' 7절에는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일곱 대접 재앙은 내려오고 있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는 그 순간에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 영적상태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재림이 있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을 말하고는 자꾸 변명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70억 인구 중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요?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 간 선교사님들을 죽인 자들이 과격파 이슬람 테러분자 같은 몇 사람, 저기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 필리핀 오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죽인 자들이 다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죽였어도 회개하고 십사만 사천 명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도 로마 정부와 황제의 부하들이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전 세계적으로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똑같이 맞아야 됩니까?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 아베 정부 요인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거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을 2차 대전 때에 괴롭힌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범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아시아의 모든 평화를 깨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전범들의 행위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온 중국과 한국이나 세계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몇 십 년 전에 2차 대전 때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행위를 숭배함으로써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나 성도들을 어느 시대에 죽였든지 간에, 그 죽이게 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뒤

라도 그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은 전범들에게 경배함으로써 2차 대전 때의 만행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베 정권의 요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피를 그들이 되돌려 받는데,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를 마시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를 마시며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피는 말씀드렸듯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기쁨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남편이든 빨대를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는 야자열매 같아요. 야자열매 위를 쳐내고 빨대 꽂아서 열매 속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빨대 투쟁이 일어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타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삶이 평강과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복된 삶의 대극점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빨대를 꽂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기쁨을 챙기려는 사람인데 여기에 반성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대접의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마음이 한없이 한없이 독하게 가렵고 괴롭습니다. 마음에 시원한 꼴이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보는데 시체의 죽은피가 썩어서 고여 있는 웅덩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느라고, 그 어느 행동과 어느 제스처와 어느 노력에도 결과가 기쁨으로 주어지지 않고 절망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딛고서려 하고 이용하려고 하며,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피해와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예고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8~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태양하면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힘 있게 비춘다.’
해가 힘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어두운 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이에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새벽이 오면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어두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 힘차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얼어 붙어있고 움츠려 있던 만물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태양의 힘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파생되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넷째 대접의 재앙이 임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모든 존재들이 돌변해서 나를 태워버립니다.

이런 소중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속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속이 끓는다. 속이 탄다.’ 바로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독하고 악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거기는 죽은 시체의 피가 고여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살아있는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빨대를 꽂아서 저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뽑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빨대를 꽂을 대상,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다 놓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고야 말겠다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희망이 내 속을 새카맣게 태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새카맣게 타고, 사업 때문에 새카맣게 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와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연속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대접 재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전에 바다짐승, 땅 짐승 할 때처럼 막 시간을 늘려서 해서는 우리가 오래 지속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키느라 애를 씁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대접 재앙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밖의 공간 밖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곱 인과 일곱 재앙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재림 직전에 어린양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복이 생길 것이고, 그 일곱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끝까지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땅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일곱 재앙이 임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지옥의 예고편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악하고 독한 마음의 가려움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살아있는 생명적 기쁨이라고는 없는 시체의 피가 썩은 웅덩이 속에서 삽니다. 그런 와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대를 꽂아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해결을 얻어 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온 태양인 것처럼 마음을 지글지글 태울 뿐입니다.
지옥의 예고편을 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